

		보 도 자 료		<div>2025년</div> <div>수도권매립지 종료</div> <div> 인천광역시</div>		
		배포일자	2021년 5월 13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건축계획과	담 당 자	• 주거복지팀장 한지영 ☎440-4741 • 담당자 김인미 ☎440-4742			
사 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형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민관연 맞손”

- 인천시 · LH · iH · 인천연구원 · 굿네이버스 간 업무협약 -
-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포용적 주거서비스 지원 추진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민·관·연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천형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조택상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김요섭 LH 인천지역본부장, 이승우 iH 사장, 이용식 인천연구원장, 홍상진 굿네이버스 인천본부장이 참석해 각 기관의 역할 수행과 협력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기관 간 전달체계가 구축되고 실행되면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중복정책과 분산된 전달체계를 지난 2월 개소한 ‘인천시 광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협력형 통합정책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천시 광역주거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수요자 접근성이 제한적인 복지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정책모델의 발굴과 제안,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정책연구기관인 인천연구원과 글로벌 아동권리전문 NGO인 굿네이버스의 민간후원 사업지원 협력을 통해 기부금 지원 등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주거서비스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천형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에 손 잡은 민·관·연 5개 기관은 앞으로 주거복지 협력사업 모델을 발굴·시행하고, ‘인천시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허브기능 강화와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천시 광역주거복지센터’의 허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LH와 iH가 임대주택공급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찾아가는 주거복지서비스, 주거상담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센터의 주거정보 전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도수 시 주택복지국장은 “인천형 주거복지 전달체계는 각 기관의 주거자원을 연계, 협력하여 폭넓고 세밀한 주거지원을 펼침으로써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적 주거사회서비스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포용적인 주거복지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6:00)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재 예정입니다.